

敬天 · 修道의 理解

鄭大珍*

目次

I. 머리말	2) 개과(改過)로서의 수도(修道)
II. 신조(信條)로서의 경천(敬天) · 수도(修道)	3) 수도(修道)방법(方法)으로서의 수련(修鍊)과 포덕(布德)
1. 경천(敬天)의 개념	III. 경천(敬天) · 수도(修道)의 이상(理想)
1) 경(敬)과 천(天)	1. 경천(敬天)에 입각한 수도(修道)
2) 경천(敬天)의 자세	2. 수도(修道)의 목적으로서의 도통(道通)
2. 수도(修道)의 개념	IV. 맺음말
1) 경천(敬天)에서 수도(修道)로	

I. 머리말

대순진리회는 도주(道主) 조정산께서 만주 봉천에 계실 때 구천상제로부터 천부의 종통계승의 계시를 받으신데서부터 비롯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70여년간의 발전사를 가진 종단의 명칭이다. 대순사상은 이러한 종단의 발전사와 더불어 도주 조정산의 통찰력으로 확립된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종지(宗旨)를 중심으로 하는 교화사상이다.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이 16자의 종지는 40년간에 순회(巡廻)주환(周環)하시며 설유(說諭)하신 강증산 구천상제의 사상을 도주께서 핵심적으로 파악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강령(四綱領) 삼요체(三要諦)의 신조(信條)와 무자기 정신개벽, 지상신선실현 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 세계개벽의 목적으로 오늘날 종단의 교리체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

계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은 도주 조정산께서 천명(闡明)하신 이상의 교리체계에 입각하여 그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종단 교리체계 가운데 신조의 내용을 이루는 사강령, 특히 경천(敬天)과 수도(修道)에 관한 것이다. 사강령의 내용 가운데 안심(安心) 안신(安身)은 필자가 지난 호에서 익히 다룬 바 있듯이 대자적(對自的) 측면을 강조한다면, 경천(敬天)과 수도(修道)는 대타적(對他的) 측면을 지니고 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개념의 중요성을 고려해 별도로 다루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경천(敬天)과 수도(修道)에 관한 이해에서는 먼저 경천(敬天)의 개념과 수도(修道)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어서 경천(敬天)과 수도(修道)의 연관관계, 나아가 그 이상적 결과로서의 도통(道通)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순서이리라 본다. 대순진리회 요람에 따르면 경천(敬天)은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上帝)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 두고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고, 수도(修道)에 대해서는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精神)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奉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신앙의 대상이신 구천상제에 대한 공경과 정성이 자신의 수도(修道)로 이어져 일상속에 깊이 뿌리내림으로서 자신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니, 경천(敬天)과 수도(修道)에 대한 이해는 신조를 실천하는 신앙인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경천(敬天)과 수도(修道)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신조(信條)로서의 경천(敬天) · 수도(修道)

1. 경천(敬天)의 개념

1) 경(敬)과 천(天)

경천(敬天)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敬)과 천(天)의 의미부터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경(敬)이라는 글자는 사전(字典)상에서 기본적으로 ‘공경함’ ‘삼가함’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대순신조로서의 경천(敬天)을 말할 때는 주로 후자(後者)의 뜻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경(敬)이란 ‘경건(敬虔)’하고 ‘황공(惶恐)’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신명을 모시고 대하며 또한 상제님,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경(敬)은 또한 모든 예의(禮儀)를 갖추는데 근본이 되고 있다. 백일 잔치를 하든 들잔치를 하든, 환갑(還甲) 고희(古稀) 미수(米壽) 백수(白壽)가 다 예의(禮儀)로서 행해진다. 어른이 되는 것도 예이며 결혼하는 것, 죽어 장사지내는 것, 제사지내는 것이 다 예의(禮儀)다. 신하가 임금을 모시는 것도 예의로서 하며, 치성(致誠)을 드리고 기도(祈禱)를 하는 것도 예의로써 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것도 예의다. 전통사회에서 볼 때 친구간에 서로 만날 때도 예의(禮儀)를 행하고서 마주 앉았다. 인간의 일상생활에 예의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사회는 그렇게 예(禮)를 숭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이 예(禮)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를 대하는 데에도 통용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천지신명(天地神明) 받들기를 극진히 해왔으며, 조상에 대한 숭조(崇祖)사상이 지극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 명절 때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동하는 대규모의 인파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숭조(崇祖)정신을 발휘하는 행위의 하나로 치러지는 제사의식은 보이지 않는 신(神)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제사를 지낼 때 사용 되는 예(禮)는 바로 인간과 신이 서로 교류하는 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또한 제례(祭禮)는 ‘경건함’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敬)사상의 주가 됨을 알 수 있다. 즉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

로 조상을 받들어 모시게 되니 이것이 예로써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경(敬)을 근본으로 한 예(禮)가 인간 상호간에도 적용되어 나올 때 일상생활에서의 예(禮)가 확립될 수 있고 모든 일이 예(禮)로써 행해지게 되는 것이니, 그렇다면 경(敬)은 오히려 인간사회에 대한 것보다는 신의 세계를 향한 자세가 근본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敬)의 뜻에 해당하는 ‘경건함’은 보이지 않는 신(神) 앞에 선 엄숙한 자세와 함께 ‘외경(畏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충된다. ‘외(畏)’는 ‘두려워함’을 뜻하는 것으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르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두려움을 느끼지만 무서운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맹수 앞에 섰을 때나 폭행을 일삼는 괴한 앞에 섰을 때는 무서움을 느낀다. 말하자면 상대가 나를 공격하든지 해를 입히려고 할 때 우리는 무서움을 느끼는 것으로 이것을 공포감(恐怖感)이라고 한다. 공포감이 들 때는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 앞에서는 결코 피하지는 않는다. 높은 산에 올라가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이는 자신이 원해서 힘들여 걸어온 길이므로 오히려 뿌듯함이 생기고 아울러 이 높은 자리를 나약한 자신이 지키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스승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길러지고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항상 아버지나 스승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면 그 아버지와 스승은 자신에게 두려운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즉 자신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능력상 감히 뛰어 넘을 수 없는 분에 대해 우리는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분에 대해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은 경건함과 함께 외경(畏敬)의 태도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경(敬)은 ‘경건함’과 함께 ‘외경함’의 자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天)에 대해서는 곧 인간 위에 있는 것으로 신(神)의 총명(總名)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하느님, 천지신명이 이에 해당한다. 대순사상에서 신(神)은

천지에 가득 찬 것으로 모든 만물에 깃들여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교법 3장 2절)라고 하여 풀잎 하나, 흙 바른 벽 할 것 없이 모두 신(신명)이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신(神)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精神)’으로 나타난다. ‘정신(精神)’은 정기(精氣)와 신기(神氣)가 합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늘(天)에 있어서는 천기(天氣)로 나타나며 땅에 있어서는 지기(地氣)로 나타난다. 이 기(氣)가 곧 신(神)이 되며 그 근원을 이루는 곳이 바로 하늘(天)인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기(氣), 즉 천신(天神)이 가장 높은 신(神)이 되며 제사도 천제(天祭)가 가장 중요하고 큰 제사가 되는 것이다. 천(天)은 이러한 천신(天神)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명사이면서 인간이 숭배하고 받들어야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천(天)을 구체적으로 말하여 천지신명(天地神明)이라고 하면 인간이 본받고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신의 세계를 말한 것이며 그 체계와 질서와 법이 엄격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또는 ‘상제(上帝)님’은 이러한 천(天)의 의미의 한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천지신명의 세계에 있어 가장 높은 위(位)에 있으면서 이 세계를 관령(管領)하고 계시는 분을 일컫는다. 한자문화권의 전통사회에 있어서 나라 임금의 그냥 ‘국(國)’이라고 일컫는 것과 같이 천지신명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을 그냥 ‘천(天)’이라고 일컫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하느님’은 순수 한국말이고 ‘상제(上帝)님’은 한자(漢字)말이다. 한자(漢字)는 뜻글자이므로 한자를 사용하면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이 세계의 위에서 인간 사물을 굽어 살피는 임금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상제님’이신 것이다. 그리하여 경천(敬天)은 경건(敬虔)하고 외경(畏敬)하는 마음으로 천지신명을 받들고 또 신앙의 대상이신 상제님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경천(敬天)의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경천(敬天)의 자세

경천(敬天)의 자세를 지닌다 함은 기본적으로 신(神)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보면 「인간사어 천청약뢰 암실기심 신목여전(人間私語 天聽若雷 暗室欺心 神目如電; 사람의 사사로운 말도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와 같으며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여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라고 하였고, 논어(論語)에도 보면 「획죄어천 무소도야(獲罪於天 無所禱也: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인간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감시와 수찰이 아주 엄격하여 감히 속일 수가 없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祈禱)를 하는 행위는 대체로 인간 자신이 신의 질서에 합(合)하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發露)라고 할 수 있으며, 신(神)을 부정하게 되면 기도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경천(敬天)의 자세는 신(神)앞에서 있는 인간이 엄숙하고 황공한 마음으로 경건(敬虔)함과 외경(畏敬)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대순신조에 있어서 경천(敬天)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천지신명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경건할 줄 아는 것이며, 나아가 신앙의 대상이신 구천상제님의 엄위(嚴威)로움 앞에 외경(畏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일컫는다. 즉 외경(畏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제님을 모시는 것이며, 이 때 '두려움'은 무서움과는 달리 항상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는 조심성있는 마음을 일컫고 있다. 자신의 잘못됨과 마음의 사곡(邪曲)함을 엄격한 신명과 상제님의 권위에 비추어 조심하는 자세가 곧 경천(敬天)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교법 3장 24절)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 (예시 30절)

위의 구절과 같이 신명의 위엄과 상제의 권위를 실감하고 그 몸과 마음을 조심하며 사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곧 경천(敬天)의 자세를 지녔을 때 가능한 것이 된다.

상제께서는 재세(在世)시에 스스로 최고신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심에 따라 당시 상제를 따르던 종도들로 하여금 경천(敬天)의 자세를 지니게끔 하셨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 마음을 환히 꿰뚫어 보고, 범접할 수 없는 신격(神格)을 지니고 있음을 보인다는지, 천지의 변화를 주재하신다는지 사람의 운명을 주관한다는지 하는데서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어느날 상제께서 식사시간이 지나서 최 창조의 집에 이르셨도다. 그의 아내는 상제께서 드나드시는 것을 못 마땅하게 여겼노라. 이날도 밥상 차리기를 싫어하는지라. 상제께서 창조에게 가라사대 「도가에서는 반드시 아내의 마음을 잘 돌려 모든 일에 어긋남이 없게 하고 순종하여야 복되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내가 문밖에서 엿듣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 마음을 보신듯이 살피심에 놀라 마음을 바로 잡으니라. (행록 4장 7절)

윗 구절은 상제께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 마음을 환히 꿰뚫어 보심으로 서 두려움을 갖게 만든 일화이며,

문 공신(文公信)과 박 장근 · 이 화춘 세 사람은 고부화약을 당하고 상제를 원망하며 불경한 패설을 일삼았도다. 이 화춘은 삼월에 의병에게 포살되었고 박 장근은 의병으로부터 매를 맞고 뼈를 부러뜨렸도다. 상제께서 이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 공신에게 마음을 바로잡을 것과 천노가 있음을 알려주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글을 써서 불사르셔서 이 화춘을 귀신으로서 위안하셨도다.(교운 1장 31절)

이 구절은 상제의 신격(神格)을 드러냄으로서 두려움을 지니게 한 것이며,

무신년 七월에 이르러 상제께서 원일을 이끄시고 부안 변산 우금암(遇

金岩)아래에 있는 개암사(開岩寺)에 가시니라. 그때 상제께서 원일에게 삶은 쇠머리 한개와 술 한 병과 청수 한 그릇을 방안에 차리고 쇠머리를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신 후에 원일을 그 앞에 꿇어앉히고 성냥 세 개비를 그 청수에 넣으시니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이제 청수 한 동이에 성냥 한 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국(水國)이 될지니라. 개벽이란 이렇게 쉬우니 그리 알지어다. 만일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쓰면 재해만 끼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려라」고 일러주시고 진설케 하신 것을 모두 거두니 곧 풍우가 그쳤도다. (공사 2장 27절)

상제께서 원일을 곧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도다. 원일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 자기 동생의 집이 폭우에 파괴되고 그 가족은 원일의 집에 피난하였도다. 원래 원일의 아우는 상제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언제나 불평을 품었도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당한 후부터 두려워서 무리한 언사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였도다.(공사 2장 28절)

김 덕찬이 상제를 대함이 항상 거만하나 상제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덕찬을 우대하시더니 하루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뢰와 번개를 발하니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 없거늘 어찌 두려워 하느냐」 덕찬이 더욱 황겁하여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더니 이후에는 상제를 천신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도다.(교운 1장 23절)

윗 구절은 천지변화를 자유자재로 하시는 상제의 권능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을 말하며,

김 광찬은 상제를 모시고 김 성화가 있는 고을 임파군(臨陂郡) 둔리(屯里)에 이르러 며칠 동안 머물렀도다. 상제께서 죽게 된 성화의 이웃 사람을 제생하셨느니라. 상제께서 환자를 만나 그 병은 그대로 치료하기 어려우니 함열(咸悅) 승림사(崇林寺) 노승을 조문하고 돌아오게 하셨도다. 환자는 중병의 몸을 이끌고 그곳을 돌아오므로써 사경에서 벗어났도다. 그는 이튿날 다시 승림사에 찾아가니 노승이 죽었는지라. 조문하고 돌아오면서도 상제 말씀에 위력을 느끼고 두려워하였도다. (제생 15절)

윗 구절은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상제의 권능에 두려움을 느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경(敬)의 자세를 지니게 되며, 상제 앞에서 또는 천지신명 앞에서 항상 조심하고 삼가게 되는 것이다.

대순신앙의 대상이신 상제를 정식으로 호칭하면 구천(九天)응원(應元)뇌성(雷聲)보화(普化)천존(天尊)강성(姜聖)상제(上帝)이시다. 구천(九天)이라 함은

제일 높다는 뜻이며, 응원(應元)이라 함은 상제께서 천지에 명령을 내리고 삼라 만상이 그 뜻을 따른다는 것이며, 뇌성(雷聲)이라 함은 삼라만상이 모두 다 살아가게끔 기운을 베풀어 주심을 뜻하며, 보화(普化)라 함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전체가 모두 다 이러한 상제님의 덕화(德化)로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천존(天尊)이라 함은 바로 지존(至尊) 지엄(至嚴)하신 하느님이라는 말이며, 강성(姜聖)상제(上帝)라 함은 그 하느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인간의 성씨를 지니고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신앙의 대상이신 상제는 실로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엄위(嚴威)로운 존재이심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제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세계 위에서 굽어살피고 있음을 자각하고 진정한 경천(敬天)의 자세를 지니는데 노력해야만 한다. 언제나 나 주위에서 관감(觀鑑)하시며 나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살피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상제님의 관감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상제님께 심고(心告)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질 때 상제님과 천지신명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천(敬天)의 자세로서 생활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신명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 그러한 신명을 담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도 똑같이 경건한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오랜 세월을 같이 산 노부부(老夫婦)도 경(敬)이 없으면 이혼(離婚)하게 된다. 근래에 드러난 사회현상에서 볼 때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경(敬)을 지니고 있어야 사랑이 샘솟게 되고, 이러한 사랑은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경(敬)이 없으면 사랑이 없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곧 결속력이 없어지게 된다. 경(敬)을 지니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상대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가 잘 되게끔 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敬)이 없으면 상제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므로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된다. 경(敬)을 지니면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 조심하게되므로 죄를 멀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천(敬天)의 자세란 항상 천지신명과 상제님을 경건하게 받드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곡(邪曲)됨도 없도록 항상 조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수도(修道)의 개념

1) 경천(敬天)에서 수도(修道)로

경천(敬天)의 마음자세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 수도(修道)이다. 즉 경천(敬天)하는 마음으로 수도(修道)를 해야 한다. 이 때 도(道)란 추상적인 진리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가까이로는 내 몸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천지만물과 우주에 두루 다 통해있는 것이 도(道)라면, 사람에게 있어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몸인 것이다. 주역(周易)에 보면 『근취저신(近取諸身) 원취저물(遠取諸物)』이라고 하여 “가까이로는 내 몸에서 이치(理致)를 얻고 멀리는 자연사물에서 그 이치를 얻는다”고 하였다. 가까이로는 내 몸에서 얻는다는 것은 눈 귀 코 입과 같은 기관을 말하며, 멀리 사물에서 얻는다는 것은 번개 바람 산 연못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인간의 몸은 마치 소우주(小宇宙)체와 같아서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받은 것이며, 사지(四肢)로 나뉘어 진 것은 천지에 사방(四方)이 있기 때문이며, 몸 안에 오장육부(五臟六腑)가 있는 것은 오운(五運)육기(六氣)가 돌고 있기 때문이며, 척추의 24태가 있는 것은 1년 365일이 24절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자신의 몸을 관찰하게 되면 우주의 구조를 알 수가 있고, 나아가 우주변화의 원리와 그 올바른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천지우주가 곧 나이며 내가 곧 우주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마찬가지로 도(道)가 곧 나이며 내가 곧 도(道)라는 것을 알아서 천지 우주의 도(道)에 합치되도록 전심(專心)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도(修道)란 이렇게 자신의 몸과 천지우주가 하나의 근원임을 깨닫고 서로 합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정한 행동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그 바탕은 경천(敬天)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음을 말한다. 천(天)에 대해 경건한 마음을 지니고 외경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그 천(天)이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천(天)을 받들어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결국 그 근본이 같음으로 천(天)으로부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 이치에 합치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겠다.

나의 몸이 곧 도(道)라면 나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도(道)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나의 행동이 선(善)하고 바른 것이라면 도(道)도 선하고 바른 것이 되고, 나의 행동이 악(惡)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도(道)도 악하고 잘못된 것이 된다. 달리 말해서 상제의 대순진리가 도(道)라면 이 도(道)를 수행해나가는 사람이 바르게 잘함으로써 대순진리는 선하고 바른 것이 되고, 잘못함으로써 대순진리는 잘못된 것이 된다. 그래서 도(道)는 선(善)한 것도 있고 악(惡)한 것도 있다. 이 선(善)과 악(惡)을 택하는 것은 모두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하늘(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桀惡其時也湯善其時也 天道教桀於惡天道教湯於善 桀之亡湯之興在伊尹; 堯이 악하였던 것도 그 때이며 탕이 선하였던 것도 그 때이다. 천도는 악에서 곁을 가르쳤고 또 천도는 선에서 탕을 가르쳤다. 곁이 망하고 탕이 흥하였던 것은 이윤에게 달려있었다.』 (공사 3장 3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선과 악의 기로에서 이윤의 선택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그만큼 사람이 도(道)를 넓히는 것이지 도(道)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人能弘道 非道弘人; 『論語』)

신조의 사강령(四綱領) 가운데 안심(安心)안신(安身)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몸은 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마음의 자세는 몸으로 표출되고 이 몸의 행동 기능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마음임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경천(敬天)과 수도(修道)에 있어서는 곧 경천이 바탕이 되어서 수도가 하나의 실천양식으로 드러난다. 경천(敬天) 없는 수도(修道)가 있을 수 없고 수도(修道) 없는 경천(敬天)이 있을 수 없다. 수도를 하되 경천이 없다면 인간이 교만해져서 도(道)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경천을 하되 수도를 하지 않는다면 도(道)를 넓힐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천과 수도는 상호 표리(表裏)가 되어서 움직여야 하고 마음과 몸에서 고루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그 상호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2) 개과(改過)로서의 수도(修道)

수도(修道)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든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개과(改過)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개과(改過)란 허물 또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말한다. 내가 곧 도(道)라면 내 몸과 마음에 묻어 있는 나쁜 것을 씻고 닦아

내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수도(修道)이다. 나 자신이 어릴 때부터 지녀온 나쁜 습성을 저버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닦는(修) 다고 한다. 이렇게 닦는 것을 반복해 나감으로써 청정한 본연의 양심을 되찾아 천지신명과 상제님의 기운에 합치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수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다시는 그러한 나쁜 짓을 하지 않을 때 제대로 수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도주께서 칠월 보름에 이 우형(李佑衡)을 앞세우고 금산사에 다녀오시니라. 권 태로·이 상우·박 봉래(朴朋來)와 여러 무리들의 앞에서 「오늘이 백종일(百種日)이니 인간 백종의 허물을 청산하는 날이니라. 인숙무죄(人孰無罪)요. 개과하면 족하니라」 고 분부하시니 그들이 모두 자기의 허물을 개과하기에 힘쓰니라. (교운 2장 15절)

윗 구절을 보면 도주께서 ‘사람이 그 어느 누가 허물이 없으리요, 그 허물을 고치면 족하다’고 하여 수도(修道)의 본령을 밝혀주시고 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면 후회하게 되고 그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신의 나쁜 습성으로 인해 빚어진 잘못이라면 언젠가는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도 그 나쁜 습성을 통렬하게 고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무신년 여름에 문 공신이 동곡에 와서 상제께 배알하니라. 그 자리에서 상제께서 그를 보고 「네가 허물을 뉘우치고 습성을 고치지 아니하면 앞날에 난경이 닥쳐오리라」 고 꾸짖고 타이르셨도다. (행록 4장 37절)

즉 수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나쁜 습성이 있을 때 이를 과감하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하며 아주 독한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진 습성이라면 현재시점에서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여 계속 괴로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선(善)한 일을 찾아 정진해 나가는 것이 그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한다. 상제께서는 이러한 수도(修道)의 이념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상제를 좇는 종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심을 지니게 하셨다.

상제께서 처음으로 자기를 따른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이 그동안 지내오

던 허물을 날날이 회상하여 마음속으로 사하여 주시기를 빌게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허물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또 반드시 그의 몸을 위하여 척신과 모든 겁액을 풀어 주셨도다. (교운 1장 2절)

상제께서 경석이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고 심히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가라사대 「일찍 모든 허물을 날날히 생각하여 풀어버리라고 하였는데 어찌 지금까지 남겨 두었느냐. 금후 다시 생각지 말라」 하셨도다. (교법 1장 37절)

허물이 있거든 다 자신의 마음 속으로 풀라. 만일 다 풀지 않고 남겨두면 몸과 운명을 그르치니라. (교법 2장 16절)

윗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제를 신앙하는 수도인은 먼저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과거 허물을 날날히 생각하여 마음으로 풀어버려야 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나쁜 습성을 고쳐야만 됨을 알 수 있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하여 괴로워 근심한다는 것은 아직 그 나쁜 습성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그러한 습성이 빨리 고쳐질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교법 2장 6절)고 하였듯이 한번 고쳐 먹은 마음이 있으면 이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항상 전전긍긍하고 경천하는 마음으로 조심해 나가는 것이 곧 수도인의 자세라고 하겠다.

3) 수도(修道)방법(方法)으로서의 수련(修鍊)과 포덕(布德)

수도인으로서 자신의 일상의 허물을 반성하고 계속 고쳐 나갈 때 그 마음은 항상 청정 무구하여 순박한 심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순박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계속해서 내 잘못을 고쳐나가게 된다. 마음을 고치고 또 고쳐먹는 것이 수도인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자신의 나쁜 습성을 고치려고 하면 인내심 또는 지구력이 약해서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내심이 약하면 그 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과감하게 일순간 뜯어고칠 수가 없으며, 지구력이 약하면 고쳐진 습성을 계속 지속시킬 수가 없어 다시 잘못을 범하게 된다. 따라서 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내심이나 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련(修鍊)은 자기의 인내심과 지구력을 키우는 하나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련을 위해 특별히 사용하는 것이 주문(呪文)인데, 이 주문은 세상에서 가장 바른 기운으로서 이루어진 경문(經文)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문(經文)을 읽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해지는 것은 그것이 바른 기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자신에게 나쁜 기운이 묻어 있음으로써 머리가 맑지 못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한 법인데, 밖으로부터 바른 기운을 불러 들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그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바르다고 하는 것은 이치(理致)나 경위(經緯)가 바름을 말하는 것으로 엄격한 천지신명과 상제님의 권능을 일컫는다.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대순지침 p.18)는 말씀처럼 수도(修道)를 하기 위해 이치이면서 경위로서의 도(道)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주문(呪文)은 이러한 바른 도(道)의 이치를 지니고 기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문의 송독을 통해 나 자신의 바른 기운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쟁사를 읽지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이니라.(교법 2장 23절)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안지방 신명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므로 사정을 알고자 부득히 그 지방에 가서 보니 원일이 공부할 때에 그 지방신(地方神)들이 호위하여 떠나지 못하였던 까닭이니라. 이런 일을 불진대 공부함을 어찌 등한히 하겠느냐」 하셨도다.(교운 1장 63절)

윗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주문을 읽으면 신응(神應)이 되고 이에 따라 신명의 호위를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주문을 읽지 않고 전쟁사를 읽으면 반대로 패전자의 신(神)이 이를 간다고 하였으니 따라서 나쁜 살기(殺氣)가 응하게 된다. 수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주문에 담겨 있는 좋고 바른 기운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써 인내심과 지구력이 길러져서 결국 자신의 나쁜 습성을 고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느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

오라. 그것이 하늘에서 으뜸가는 임금이니라. 오만년 동안 동리 동리 각 학교마다 외우리라」 하셨도다. (교운 1장 60절)

모든 주문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은 태을주(太乙呪)이다. 이 태을주는 앞으로 맞이할 후천(後天) 오만년동안 동리 동리 각 학교마다 외을 주문으로 오늘날 수도하는 사람들이 잠을 적게 자서라도 이 주문을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문을 읽는 것으로서 수련(修鍊)을 계속하는 것에 의해 나쁜 것을 물리쳐 저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칠 수 있는 것을 못 고치는 것은 수련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보다 강인한 정신을 가졌을 때 고쳐질 수 있으며, 이 정신은 수련을 계속함으로써 강해져서 결국 자신의 나쁜 습성도 고쳐지게 되는 것이다.

수도의 방법으로서 또 하나 제시될 수 있는 것은 포덕(布德)이다. 포덕(布德)은 글자 그대로 덕(德)을 편다는 말이니 이 덕(德)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이면서도 상제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도 하다. “하늘(天)이 나에게 덕(德)을 내려주셨다; (「天生德於予」; 論語)”고 한 성인(聖人)의 말씀처럼 하늘은 곧 상제님이니 대순신앙의 대상이신 구천상제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상제께서는 인세(人世)에 대강(大降)하사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해 내일의 후천선경을 예비하셨으니 대순 수도인이란 상제의 그 대순하신 진리를 체념봉행(體念奉行)하고 각진기심(各盡其心)하고 각복기력(各服其力)하여 그 대업(大業)을 넓히는 것이 그 사명이 된다. 또 이로써 오늘날 귀의(歸依)할 바를 삼고자 창설된 것이 바로 대순진리회이다. 여기에 그 대업(大業)을 넓힌다는 것은 상제의 덕화(德化)를 널리 선양(宣揚)하면서 주변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다스려 나가는 것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나쁜 습성을 상제님의 바른 기운으로서 고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불행과 잘못도 상제님의 덕화(德化)로서 고쳐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포덕(布德)이다.

상제께서 어느날 류 찬명(柳贊明)과 김 자현(金自賢) 두 종도를 앞세우고 각각 십만인에게 포덕하라고 말씀하시니 찬명은 곧 응낙하였으나 자현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상제의 재촉을 받고 비로소 응낙하느니라. 이때 상제께서 「내가 평천하 할 터이니 너희는 치천하 하라. 치천하는 오십년 공부이니라. 매인이 여섯명씩 포덕하라」 고 이르시고 또 「내가 태을주(太乙呪)와 운장주(雲長呪)를 벌써 시험해 보았으니 김 병욱의 액

을 태을주로 풀고 장 효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록 3장 31절)

윗 글에서 상제께서는 평천하(平天下)하신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여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치천하(治天下)는 상제님의 법으로 모든 인간 사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므로 상제님의 바른 이치와 경위가 모든 잘못된 것을 일소(一掃)하여 올바른 도(道)가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수도인들이 전념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포덕(布德)의 의미가 한층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으나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상제의 대업을 넓힘으로써 내일의 후천세계를 앞당기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나아가 수도의 목적이 달성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므로 마땅히 사명감을 가지고 수도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이상에서 볼 때 수도의 방법으로 제시된 수련과 포덕은 개인과 사회 나아가 전 인류를 향한 진리의 실천임을 알 수 있다. 자기 완성과 더불어 인류 사회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수도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개인의 측면에서 수련을 행해 나가고 사회적 측면에서 포덕을 해 나감으로써 이 사회를 계도하고 이것이 확산됨으로써 종국(終局)에는 인류의 평화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Ⅲ. 경천(敬天) · 수도(修道)의 이상(理想)

1. 경천(敬天)에 입각한 수도(修道)

경천(敬天)과 수도(修道)는 서로 표리(表裏)가 되고 체용(體用)이 되는 관계로 이를 이상적으로 실천한다 함은 곧 상제의 대순진리를 체념봉행(體念奉行)하는 그 자체이다. 수도(修道)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道)의 기준을 확립해야 하는데 이 도(道)는 하늘(天)에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경천(敬天)의 자세가 반드시 요구된다. 천(天)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천지신명이면서 상제님을 지칭한다. 신의 엄격한 질서와 법을 깨달아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게끔

생활해 나가는 것이 수도(修道)다. 자신의 나쁜 습성과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천(天)또는 도(道)의 기준에 입각해서 뜯어 고쳐나가며 항상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천(天), 즉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외경(畏敬)할 줄 모르고 수도를 하게되면 교만에 빠지듯이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 신명을 받드는 마음으로 수도를 해 나가는 것이 경천(敬天)에 입각한 수도(修道)라고 할 수 있다.

경(敬)의 마음을 지니게 되면 도덕을 준수하고 지켜나가며 이를 숭상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천(天)이 곧 도(道)이므로 천(天)에 대한 외경(畏敬)은 자연히 도덕(道德)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도덕이 있으므로 인간사회에는 윤리(倫理)가 존재한다. 인간관계에서는 주로 인륜(人倫)이라고 하고 이러한 인륜(人倫)을 지켜나가려는 그 마음이 곧 경(敬)이다. 인륜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것이고 윤리(倫理)는 그 이치(理致)가 있다는 말이다. 이치(理致)는 곧 도(道)이고 도(道)가 곧 도덕(道德)이다. 그리하여 경(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것을 가려선택함으로써 도(道)를 넓히고 대업(大業)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이 수도(修道), 즉 도(道)를 닦을 수 있음은 그 도(道)의 근원이 하늘(天)에서부터 나왔고 사람이 또한 하늘에서부터 정기를 받아 태어났으므로 그 근원이 같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이에 사람은 누구나 하늘의 성품을 지니고 있고 마찬가지로 경(敬)도 지니고 태어난다. 하지만 물욕(物慾)이나 색욕(色慾) 또는 권력욕(權力慾)에 집착하다보면 그 마음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죄를 짓고 불안하게 살아가게 되니 수도(修道)란 이러한 자기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광대무변한 상제님의 진리에 동귀(同歸)하고자 대념원(大念願)을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청정무구(淸淨無垢)한 본연의 양심을 회복하면 이로써 안심(安心)도 되고 안신(安身)도 되어 수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진리를 탐구함은 도(道)를 파악하는데 있고 이 도(道)는 하늘의 이치(理致)고 경위이며 천지신명과 상제님은 도(道) 그 자체로 존재한다. 수도(修道)란 그 도(道)를 닦는다는 말이니 경천(敬天)은 수도를 위한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경천(敬天)에 입각하여 수도(修道)를 행해나갈 때 그 수도는 비

로소 완성을 이룰 것이다. 여기에 수도의 목적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통(道通)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고행의 과정도 궁극적으로 도통에서 결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도통에 대한 목적의식은 경천과 수도의 이해에 있어 선행적으로 분명히 인식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수도(修道)의 목적으로서의 도통(道通)

대순진리회의 교리체계에 있어서 종지(宗旨)는 하나의 사상이자 이상이고 바람이다. 여기에 신조(信條)는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으로 이 조건대로 믿어 나가라는 것이다. 사강령(四綱領) 가운데 안심(安心)과 안신(安身)은 모든 의심을 다 풀고서 그 몸과 마음이 상제님의 도(道)에 정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경천(敬天)은 경건한 마음으로 상제님을 모시는 것을 말하고 수도(修道)는 자신의 잘못됨을 고치고 부족함을 채워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도를 통해 달성되는 인간의 경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통(道通)이라고 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막힌 곳이 없으며 시방세계에 통달하게 되는 인간완성의 경지가 바로 도통(道通)이다. 어떤 일을 하면서도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없으면 중도에서 회의(懷疑)가 생기게 마련인데 수도(修道)를 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도통(道通)이며 자신의 인생지표로서 삼아 반드시 그 결실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 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中有泰仁下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 (예시 45절)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말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교운 1장 41절)

윗 구절에서 도통군자(道通君子)는 곧 도통을 이룬 사람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 도통은 신앙의 대상이신 구천상제로부터 연원(淵源)이 되어 하나의 계통(系統) 줄로서 전해짐으로 모든 인연있는 중생이 다 받아 누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각자는 심신(心身)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道)에 통하게 되어 누구나 수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도(修道)의 목적인 도통(道通)은 또한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이라는 개념속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영(靈)은 인간이 지니는 가장 신령스러운 정신으로 수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도(修道)로서 정진(精進)하여 통일(統一)을 이루게 되면 '정신일도하사 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과 같이 되어 이 영(靈)은 모든 만물을 막힘이 없이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천기(天氣)와도 통하고 지기(地氣)와도 통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곧 영통(靈通)이다. 이렇게 고도(高度)의 정신적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인간은 또 어떠한 원율(冤鬱)과 번뇌(煩惱)도 없게 되고 나아가 육체의 불로불사(不老不死)까지 이룰 수 있어 그야말로 인간의 완전함이 구가됨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모든 종교는 저마다의 진리를 주장하고 또 그 수행(修行)의 범위 내에서 도통을 추구하여 왔다. 이 때 도통은 그 종교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모든 종교지도자는 역사적으로 그 도통을 이룬 분이 이끌어내셨던 것으로 본다. 하지만 종교의 숫자는 많아지고, 반면 진정한 종교지도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인 만큼 도통의 연원을 따라 상제님의 대도(大道)를 수도해 나가는 것이 과제로 여겨진다.

또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孔子)는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五百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 (교운 1장 34절)

많은 사람이 도통을 이름에 있어 제한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대도

(大道)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누구나 마음을 닦은 사람이라면 닦은 바에 따라 저마다 통하게 하는 것이 도통(道通)의 참모습이 되어야 한다.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는 이러한 도통(道通)의 참모습을 시현(示現)하고 있으며 못 중생들을 향해 열려 있는 대도덕(大道德)임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하리라 본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경천(敬天)과 수도(修道)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먼저 경천(敬天)의 개념에 있어서는 경(敬)이 경건(敬虔)과 외경(畏敬)의 마음을 지칭한다고 보았으며, 천(天)은 천지신명과 상제님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경천(敬天)이란 천지신명을 포함하여 엄위(嚴威)로운 상제님을 외경(畏敬)하면서 경건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때 경천(敬天)의 내용 가운데에는 상제님의 존재 그 자체도 들어 있지만 상제님의 역사(役事)와 그 대도(大道)의 진리가 두려우리만큼 위대함을 알아서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파악하는데 주 요지가 있다 하겠다.

수도(修道)는 곧 천지(天地)의 도(道)가 나요 내가 곧 천지의 도(道)임을 알아서 자신의 잘못을 뜯어 고치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도(道)란 이치고 경위여서 천·지·인에 두루 통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인간에 있어서는 윤리와 도덕으로 나타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수도의 생활이 된다. 그 방법으로서 요구되는 수련(修鍊)과 포덕(布德)은 자신의 정신력을 기르고 나아가 도를 넓히는 주된 것으로서 수도의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 도(道)를 주관하는 절대 권능자로서 대순신앙의 대상이신 구천상제께서는 인세(人世)에 대강(大降)하여 유일무이한 진리를 선포하셨으므로 이를 체념봉행(體念奉行)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수도의 내용으로 거론될 수 있다.

경천(敬天)에 입각한 수도(修道)는 이러한 상제님의 대도(大道)를 자각하고 상제님에 대한 외경의 자세로 이를 받들어 나가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장차 수도의 목적인 도통(道通)을 달성하는 것이 오늘날 수도인의 주된 과

제로 남아 있다. 종지(宗旨)로서 그 이상(理想)이 제시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곧 신조(信條)이다. 신조의 주된 내용으로서 거론된 사강령(四綱領)은 그 가운데 가장 버리가 되는 것으로 모든 수도인들이 추구해 나가야 할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안심(安心)과 안신(安身)은 자기수행의 훈전(訓典)이 되는 이율령(二律令)이라고 한다면 경천(敬天)과 수도(修道)는 그 수행의 완성을 기하는 봉교(奉敎)신앙(信仰)의 태도라고 하겠다.